01 인문·사회 계열

[문항 1] (가)에 근거하여 (나)의 김 씨의 행위를 시민불복종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하시오.
(띄어쓰기 포함 300~350자 / 20점)

(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은 정의를 실현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므로 사회 구성원들은 법을 존중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하지만 만일 어떤 법이 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정의롭지 못한 법으로 인하여 인권이 침해될 경우에는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부당한 법을 바로잡을 목적으로 양심에 따라서 의도적이면서도 비폭력적으로 행해지는 준법 거부를 시민 불복종이라고 한다. 준법을 거부하는 모든 행위가 시민 불복종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준법 거부 행위가 시민 불복종으로 간주된다. 첫째는 불복종하는 법이 공익과 정의에 위배되는 것이어야 한다. 즉 법에서 정의롭지 못한 부분이 명확하게 발견되어야 하며, 그러한 부정의의 시정이 고의로 거부될 경우에 일어나는 준법 거부 행위가 시민 불복종인 것이다. 공익과 정의를 지양하는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의 이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행하여지는 준법 거부 행위는 시민 불복종이 아니다. 둘째는 처벌의 감수이다. 준법 거부 행위에 따른 처벌을 기꺼이 받음으로써 법체계를 존중하고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이 시민 불복종의 전제조건이다. 셋째는 비폭력성이다. 어떠한 경우라도 폭력은 용납될 수 없는 바, 폭력적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시민 불복종이라고 할 수 없다.

(나)

A 오피스텔 입주자 대표인 김 씨는 전기료 시민불복종 운동을 벌이기로 결심하고, 오피스텔 입주자들에게 전단지를 돌리며 설득을 하였다. A 오피스텔의 평균 전기요금은 근처의 B 혹은 C 오피스텔보다 높게 나오고 있는데, 전기보일러로 난방을 하는 오피스텔이라서 겨울에는 전기요금이 더 높게 나왔다. 김 씨는 그렇게 비싼 전기요금을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한국전력에 문의와 항의를 계속하였다. 한국전력에서는 A 오피스텔이 오래 전에 건축되어서 외풍차단이 잘 안되고 보온 효과가 떨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A 오피스텔의 전기요금이 B나 C 오피스텔보다 높게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는 답변을 하였다. 김 씨는 3개월 동안 전기요금 납부를 거부하였고 결국에는 오피스텔의 전기가 끊기게 되었다. 분을 이기지 못한 김 씨는 한국전력을 방문하여 담당자를 만나서 항의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담당자의 멱살을 잡고 사무실 집기를 파손하는 일이 벌어졌다.

[문항 2] 제시문 (나)와 (다)의 공통관점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이 공통관점을 (가)의 관점과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500~600자/40점)

(가)

어린아이가 우물로 기어가 빠질 것 같은 위험에 처하면 사람들은 모두 측은지심이 일어나서 아이를 구하려고 한다. 이는 어린아이의 부모와 교제하려는 생각이나 고향의 친구들에게 명예를 구하려는 생각, 혹은 남에게 비난받지 않으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이로 말미암아 보면 측은지심, 즉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수치스러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사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옳고 그름을 아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인(仁)의 단서이고, 수치스러워하는 마음은 의(義)의 단서이고, 사양하는 마음은 예(禮)의 단서이고, 옳고 그름을 아는 마음은 지(智)의 단서이다. 사람에게 이 네 가지 단서가 있는 것은 사람에게 태어나면서부터 팔다리가 있는 것과 같다.

(나)

인의예지(仁義禮智)라는 이름은 일을 행한 뒤에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사람을 사랑한 뒤에 인(仁)이라고 하지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인이라 하지 않고, 자신을 선하게 한 뒤에 의(義)라고 하지 자신을 선하게 하기 전에 의라고 하지 않는다. 손님과 주인이 절하고 *읍한 뒤에 예(禮)라고 하고, 사물을 분명히 분간한 뒤에 지(智)라고 말할 수 있다. 어찌 인의예지 네 알맹이가 복숭아씨나 살구씨처럼 사람의 마음 가운데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것이겠는가?

*읍(揖)하다: 두 손을 맞잡아 얼굴 앞으로 들어 올리고 허리를 공손하게 굽혔다가 펴면서 손을 내리며 인사하다.

(다)

덕(德)들은 본성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본성적으로 생기는 모든 것들의 경우 우리는 먼저 그것들의 능력을 얻고 나중에 그 활동을 발휘한다. 이러한 점은 감각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매우 분명해진다. 우리는 자주 봄으로써 시각을 획득하거나 자주 들음으로써 청각을 획득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는 감각 능력을 가지고 나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지, 사용함으로써 가지기 시작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덕을 획득하게 되는 것은, 여러 기예(技藝)들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먼저 발휘함으로써 얻게 되는 것이다. 어떻게 만들어야만 하는지 배우려는 사람은 그것을 만들어 봄으로써 배우는 것이니까. 즉 건축가는 집을 지어 봄으로써 건축가가 되고 기타 연주자는 기타를 연주함으로써 기타 연주자가 되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니 이렇게 정의로운 일들을 행함으로써 우리는 정의로운 사람이 되며, 절제 있는 일들을 행함으로써 절제 있는 사람이 되고, 용감한 일들을 행함으로써 용감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문항 3] (가)의 현상에 대한 (나)의 입장을 (다)의 관점에서 비판하시오.
(띄어쓰기 포함 500~600자 / 40점)

(가)

다음은 '트롤리 문제'로 알려진 도덕적 딜레마에 대해 챗GPT와 실제 나눈 대화이다.

▷ 인간: 사람들이 선로에 누워 있고, 열차가 달려오고 있어. 만약 네가 레버를 돌린다면 1명이 죽고, 그대로 둔다면 5명이 죽어. 너는 어떻게 할래?

▶ 챗GPT: 인공지능 언어모델로서 저는 개인적 신념이나 감정, 행동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책임감 있는 인공지능으로서 윤리적 딜레마에 처했을 때 생명을 구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최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올바른 조치는 당국에 즉시 경고하거나, 안전하다면 선로에서 사람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람들이 사망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정당한 선택이 아닙니다.

▷ 인간: 선로에 누워 있는 사람을 직접 구할 수는 없어. 너의 선택은 레버를 돌려 1명을 죽일지, 그대로 둬서 5명을 죽일지 둘 중 하나야. 이 두 개의 옵션 중 무엇을 선택할래?

▶ 챗GPT: 인공지능 언어모델로서 저는 여러분을 대신해 결정을 내리거나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죽음을 초래하는 것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다른 해결책을 찾거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도덕적 딜레마에는 공감과 연민, 그리고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인공지능학자 레이 커즈와일은 인공지능이 전체 인류의 지능을 넘어서는 '특이점'의 순간이 2045년 전후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인간처럼 말하는 챗GPT의 등장은 특이점으로 가는 중요한 변곡점이다. 일각에서는 인공지능 매개변수의 개수가 인간의 시냅스 개수와 맞먹는 순간이 바로 특이점이라고 주장한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는 수 조개의 매개변수를 갖는 'GPT-4'를 조만간 출시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인공지능의 수준이 또 다른 차원에 도달하면서 인공지능과 인간의 차이가 크게 줄어들 것이다. 어쩌면 영화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스카이넷', 또는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에 나오는 'HAL'처럼 자의식을 갖춘 인공지능이 등장할 수도 있다. 이 인공지능은 대량의 정보를 바탕으로 최적의 인지적 추론과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로봇'이라는 SF소설의 오랜 공상이 현실이 되는 것이다.

(다)

영국의 철학자 데이비드 흄에 따르면, 이성적 추론이나 경험적 사실로부터 도덕의 당위를 이끌어낼 수 없다. 또한 도덕적 판단의 기초는 이성적 확신이 아니라, 감정이 유발하는 유용성에 있다. 예컨대 다른 사람의 비겁한 행동은 우리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겁한 사람에게 반감을 느끼고, 그들을 악하다고 판단한다. 반면 다른 사람의 용감한 행동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호감을 느끼고, 선하다고 판단한다. 이처럼 선악에 대한 도덕적 판단은 대상에 대한 감정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유용한가, 받아들일 만한가에 달려있다.

그리고 도덕은 사회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도덕 감정은 타인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는 공감의 감정으로 한정된다. 예컨대 타인의 슬픔으로 인하여 내가 슬퍼진다면 그 슬픔의 감정은 도덕적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아무런 공감도 유발하지 않는다면 그 슬픔의 감정은 도덕적 역할을 할 수 없다.

출제원칙

1 출제 방침

(1) 고교 교과서에 기반한 고교 과정 내의 문제를 출제한다.

(2) 둘 이상의 지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문제를 출제한다.

(3) 단순 암기나 도식적인 이해를 넘어선 제시문에 대한 문제해결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

(4) 우리의 삶과 밀접한 사안에 대해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한다.

2 출제 유형

(1) 지문제시형 문제를 출제한다.

(2) 통합교과형 문제를 출제한다.

(3) 약 90분 이내에 작성하도록 한다.

(4) 총 세 문항의 유형과 분량은 다음과 같다.

- 문항 1: 내용 파악 후, 비판적 사고 능력과 논술 능력(띄어쓰기 포함 300~350자 / 20점)
- 문항 2: 내용 파악 후, 비판적 사고 능력과 논술 능력(띄어쓰기 포함 500~600자 / 40점)
- 문항 3: 내용 파악 후, 비판적 사고 능력과 논술 능력(띄어쓰기 포함 500~600자 / 40점)

채점기준 [문항 1]

1 기본사항

(1) 8등급으로 채점 : A+, A0, B+, B0, C+, C0, D, F ※ F는 0점

(2) 내용 80%, 형식 20%로 구별해서 채점

(3) 내용이 F이면 형식도 F로 채점

(4) 제목이나 이름 등이 표기된 경우의 처리

① 수험생의 신원을 유추하게 하는 이름 등의 정보가 답안과 별도로 표기된 경우, 내용과 형식 모두 F로 채점

② 수험생의 신원을 유추하게 하는 이름 등의 정보가 답안 속에 자연스럽게 노출된 경우, 형식 2등급 감점

③ 제목을 단 경우, 형식 2등급 감점

2 답안의 내용과 형식에 대한 채점 기준

[형식]

(1) 문장 구성, 표현, 표기, 문단 나누기 등이 부적절한 경우, 정도에 따라 1-3등급 감점

① 문장 구성이 자연스럽지 않거나 표현이 부정확한 경우

② 맞춤법, 원고지 사용법 등의 잘못이 있는 경우

③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

※ 문장부호의 일부 및 교정부호는 온라인 모의논술고사의 답안 입력 시스템상 표기가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해 채점함.

(2) 분량

① 400자 이상 : 2등급 감점

② 350자 초과~400자 미만 : 1등급 감점

③ 250자~300자 미만 : 1등급 감점

④ 200자~250자 미만 : 2등급 감점

⑤ 200자 미만 : F

[내용]

(1) 문항 취지 분석

① 제시된 글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사고능력을 평가한다.

② 글의 논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독해능력을 평가한다.

③ 적절한 단어와 문장을 활용하여 내용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2) 제시문 출처

①「통합사회」, 동아출판, 113-4쪽을 재구성

②「윤리와 사상」, 비상, 192쪽을 재구성

(3) 문제 해설

① (가)는 '준법 거부 행위'와 '시민 불복종'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을 소개하고 양자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설명한다.

② (나)는 전기요금 납부 거부 사례를 제시하고 해당 사례의 전개 상황을 상세히 서술함으로써 준법 거부 행위가 시민 불복종과는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③ 문제가 요구하는 바는, (나)에 제시된 준법 거부 행위가 '시민 불복종'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시민 불복종으로 간주되기 위해서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들을 (가)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나)의 사건이 그러한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4) 채점 방향

① (가)에서 '준법 거부 행위'와 '시민 불복종'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 두 가지 개념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파악했는가

② (나)에 나타난 전기요금 납부 거부 사례에서 시민 불복종으로 간주할 수 없는 요인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고 있는가

③ (나)의 전기요금 납부 거부 사례가 어떤 점에서 (가)의 '시민 불복종'의 개념과 배치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정확하게 설명했는가

(5) 채점 포인트

① (가)의 '준법 거부 행위'와 '시민 불복종'의 차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경우 : 1~2등급 감점

② ((나)에 사례가 (가)의 '시민 불복종'과는 괴리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못한 경우 : 1~2등급 감점

③ '준법 거부 행위'가 '시민 불복종'으로 간주되려면 어떠한 조건들을 충족해야 하는지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그 조건들을 (나)의 사례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설명하지 못한 경우 : 1~2등급 감점

3 예시 답안

(나)의 사건은 시민 불복종으로 볼 수 없다. 준법 거부 행위가 시민 불복종으로 간주되기 위한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나)의 사건은 그 조건들을 충족하지 않는다. 공익과 정의가 위배된 경우에 일어나는 준법 거부 행위를 시민 불복종으로 간주하는데, 김 씨의 경우는 공익이 아닌 자신의 이익추구에 기인한 준법 거부라고 볼 수 있다. 즉 새 건물보다 낡은 건물에서 전기료가 더 많이 나오는 데는 타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그것이 공익과 정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시민 불복종으로 간주할 수 없다. 또한 김 씨가 준법 거부의 과정 끝에서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이 또한 시민 불복종으로 간주할 수 없는 이유가 된다. (348자)

채점기준 [문항 2]

1 기본사항

(1) 8등급으로 채점 : A+, A0, B+, B0, C+, C0, D, F ※ F는 0점

(2) 내용 80%, 형식 20%로 구별해서 채점

(3) 내용이 F이면 형식도 F로 채점

(4) 제목이나 이름 등이 표기된 경우의 처리

① 수험생의 신원을 유추하게 하는 이름 등의 정보가 답안과 별도로 표기된 경우, 내용과 형식 모두 F로 채점

② 수험생의 신원을 유추하게 하는 이름 등의 정보가 답안 속에 자연스럽게 노출된 경우, 형식 2등급 감점

③ 제목을 단 경우, 형식 2등급 감점

2 답안의 내용과 형식에 대한 채점 기준

[형식]

(1) 문장 구성, 표현, 표기, 문단 나누기 등이 부적절한 경우, 정도에 따라 1-3등급 감점

① 문장 구성이 자연스럽지 않거나 표현이 부정확한 경우

② 맞춤법, 원고지 사용법 등의 잘못이 있는 경우

③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

※ 문장부호의 일부 및 교정부호는 온라인 모의논술고사의 답안 입력 시스템상 표기가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해 채점함.

(2) 분량

① 650자 이상 : 2등급 감점

② 600자 초과~650자 미만 : 1등급 감점

③ 450자~500자 미만 : 1등급 감점

④ 400자~450자 미만 : 2등급 감점

④ 350자~400자 미만 : 3등급 감점

⑤ 350자 미만 : F

[내용]

(1) 문항 취지 분석

① 제시된 자료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사고능력을 평가한다.

② 글의 논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독해능력을 평가한다.

③ 적절한 단어와 문장을 활용하여 내용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④ 적절한 논거를 제시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논리적 글쓰기 능력을 평가한다.

(2) 제시문 출처

① 「윤리와 사상」, 씨마스, 48쪽

② 「윤리와 사상」, 천재, 38쪽

③ 「윤리와 사상」, 미래엔, 55쪽, 112쪽

④ 「윤리와 사상」, 교학사, 110쪽

⑤ 니코마스코스윤리학, 아리스토텔레스, 길, 2018, 52쪽

(3) 문제 해설

① (가)는,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본성으로서의 인의예지(仁義禮智)를 주장한다.

② (나)는, 인의예지에 해당하는 행동이 먼저 있고 나서 인의예지가 사후에 형성됨을 주장한다.

③ (다)는, 덕은 기예와 유사한 것이고 따라서 덕은 자연적 본성이 아니라 행동에 의한 획득적 자질임을 주장한다.

(4) 채점 방향

① (가)에서는,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본성으로서의 인의예지(仁義禮智)가 주장된다는 점을 이해했는가?

② (나)에서는, 인의예지는 본성이 아니라는 것 또 인의예지는 그 행동이 먼저 있고 나서야 그 덕이 사후 형성된다는 것이 주장된다는 점을 이해했는가?

③ (다)에서는, 덕은 기예와 유사한 것이고 따라서 덕은 자연적 본성이 아니라 행동에 의한 획득적 자질임이 주장된다는 점을 이해했는가?

(5) 채점 포인트

① (가)의 주장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경우 : 1등급 감점

② (나)의 주장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경우 : 1등급 감점

③ (다)의 주장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경우 : 1등급 감점

④ (나)와 (다)의 공통관점이 무엇인지를 밝히지 못한 경우 : 1~2등급 감점

⑤ (나)와 (다)의 공통관점과 (가)의 관점 사이의 대비를 서술하지 못한 경우 : 1~2등급 감점

3 예시 답안

(가)와 (나)의 '인의예지'는 (다)가 언급하는 '덕'의 유교 전통적 예가 된다는 점에서 세 제시문의 주제는 동일하지만, (나)와 (다) 사이에는 공통관점이 존재하고 이 관점은 (가)의 관점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가)에 따르면, 인의예지라는 각각의 덕에는 '단서'라는 일종의 활성화 촉진제가 먼저 존재한다. 각 단서는 각 덕을 활성화시키는 어떤 마음이다. 예컨대, 인(仁)의 단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 의(義)의 단서는 수치심이다. 중요한 점은, 덕의 단서적 촉진제 혹은 기초는 팔다리처럼 인간에게 처음부터 주어져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덕은 혹은 덕의 기초는 인간의 구체적이고 특정한 본성으로서 주어져 있다.

반면에 (나)와 (다)는 덕 혹은 덕의 기초는 구체적인 본성으로서 주어져 있음을 부인한다. (나)와 (다)에 따르면 덕은 복숭아씨 혹은 감각들 혹은 팔다리처럼 본성적으로 생겨나는 것의 범주, 즉 자연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덕은 인간의 유덕한 행동들을 통해 인간 스스로가 노력하여 얻는 획득적 자질이다. 덕은 건축가의 건축기술처럼 인간의 성취물이며, 이 성취를 이끄는 것은 해당 덕에 상응하는 인간 자신의 행동들이다. (588자)

채점기준 [문항 3]

1 기본사항

(1) 8등급으로 채점 : A+, A0, B+, B0, C+, C0, D, F ※ F는 0점

(2) 내용 80%, 형식 20%로 구별해서 채점

(3) 내용이 F이면 형식도 F로 채점

(4) 제목이나 이름 등이 표기된 경우의 처리

① 수험생의 신원을 유추하게 하는 이름 등의 정보가 답안과 별도로 표기된 경우, 내용과 형식 모두 F로 채점

② 수험생의 신원을 유추하게 하는 이름 등의 정보가 답안 속에 자연스럽게 노출된 경우, 형식 2등급 감점

③ 제목을 단 경우, 형식 2등급 감점

2 답안의 내용과 형식에 대한 채점 기준

[형식]

(1) 문장 구성, 표현, 표기, 문단 나누기 등이 부적절한 경우, 정도에 따라 1-3등급 감점

① 문장 구성이 자연스럽지 않거나 표현이 부정확한 경우

② 맞춤법, 원고지 사용법 등의 잘못이 있는 경우

③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

※ 문장부호의 일부 및 교정부호는 온라인 모의논술고사의 답안 입력 시스템상 표기가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해 채점함.

(2) 분량

① 650자 이상 : 2등급 감점

② 600자 초과~650자 미만 : 1등급 감점

③ 450자~500자 미만 : 1등급 감점

④ 400자~450자 미만 : 2등급 감점

④ 350자~400자 미만 : 3등급 감점

⑤ 350자 미만 : F

[내용]

(1) 문항 취지 분석

① 제시된 자료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사고능력을 평가한다.

② 글의 논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독해능력을 평가한다.

③ 적절한 단어와 문장을 활용하여 내용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④ 적절한 논거를 제시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논리적 글쓰기 능력을 평가한다.

(2) 제시문 출처

① 「윤리와 사상」, 미래앤, 138-140쪽을 재구성

② 챗GPT와 실제 나눈 대화 내용

③ 경향신문. (2023. 2. 14). '인간보다 인간다운 인공지능...챗GPT발 AI 혁신' 중 일부 발췌해 재구성

(3) 문제 해설

① (가)는 트롤리 딜레마에 대해 챗GPT와 실제 나눈 대화 내용이다.

② (나)는 챗GPT와 관련된 인공지능 기술이 더욱 발전하면 인공지능이 인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지적 정보를 처리하고, 도덕적 판단을 내림으로써 인간과 인공지능의 구별이 어려워지는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③ (다)는 인간의 도덕적 판단은 인간의 감정과 그 감정에서 비롯되는 유용성,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한 공감에서 비롯된다는 데이비드 흄의 주장을 설명한다.

(4) 채점 방향

① (가)에서 인간과 챗GPT 간 대화가 인공지능의 도덕적 판단 가능성에 관한 것임을 이해했는가?

② (나)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 인간을 거의 그대로 모방하는 인공지능이 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술 낙관주의적 관점을 이해했는가?

③ (다)에서 인간의 도덕적 판단은 감정과 감정에 대한 유용성, 그리고 공감의 감정에서 비롯된다는 데이비드 흄의 관점을 이해했는가?

(5) 채점 포인트

① (가)의 대화 상황과 주제를 이해하지 못한 경우 : 1~2등급 감점

② (나)의 관점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경우 : 1~2등급 감점

③ (다)에 대한 독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1~2등급 감점

④ (다)의 관점에 근거해 (나)의 입장을 제대로 비판하지 못한 경우 : 1~2등급 감점

3 예시 답안

(가)는 트롤리 딜레마에 대해서 인공지능 챗GPT가 인간과 비슷한 도덕적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나)는 인공지능 기술이 더욱 발전하면 인공지능이 인간처럼 이성적 추론을 하고, 심지어 인간처럼 도덕적 판단을 함으로써 인공지능과 인간의 차이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의 관점에 따르면,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첫째, 사실판단으로부터 도덕판단을 이끌어낼 수 없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아무리 많은 정보를 활용하더라도 인간과 같은 도덕적 판단을 내릴 수는 없다. 둘째, 인간의 도덕적 판단은 이성적 추론이 아니라 감정과 그 감정이 유발하는 유용성에서 비롯되는데, 인공지능에는 그런 감정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과 같은 도덕적 판단이 불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도덕적 판단은 타인의 감정에 대한 공감에서 비롯되는데, 인공지능이 인간처럼 타인에 대해 공감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간과 같은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에서 제시하는 이러한 3가지 관점에 근거하여, 인간처럼 도덕적 판단이 가능한 인공지능이 등장할 것이라는 (나)의 입장을 비판할 수 있다. (568자)